

기술에 감성을 담아 : SBS 대선방송 2017 국민의 선택

글.

박재현 SBS 뉴미디어개발팀

2016년 말 대한민국은 분노했고 그 분노는 일찍이 없었던 아주 집요하고 끈질긴, 하지만 역사상 가장 평화로운 방법으로 살아있는 권력을 퇴출시켰다. 화염병은 30년도 채 안 되어 촛불로 바뀌었고, 국민은 위대했다. 그 위대한 국민은 최초의 대통령 보궐선거를 이끌어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방송인들은 절망하고 지친 국민을 위로하고 달래야 할 중책을 떠맡게 되었다.

2017 대선 방송 개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번 선거는 공식적으로 “대통령 보궐선거”이다. 궐위 후 2달 이내에 치러져야 하는 “법 규정” 때문에 2달 동안의 짧은 기간에 방송사의 책무를 수행해야만 했고, 믿고 보는 SBS 선거방송에 대한 “전국민적인” 기대에도 부응해야 했다.

지금까지의 선거방송은 방송사의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화려한 기술, 첨단 장비를 동원해 뽐내고, 떠들썩한 이벤트였다. 하지만, 이번 선거방송은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가란 국민입니다!!!”고 절규했던 어느 영화의 대사처럼, 민주국가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과 함께하는 공감방송을 목표로 준비되었다. 이를 위해 눈에 띄는 화려함보다는 지금까지 SBS가 시청자들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갔던, 그리고 SBS가 가장 자신있어 하는 그래픽에 그 마음을 담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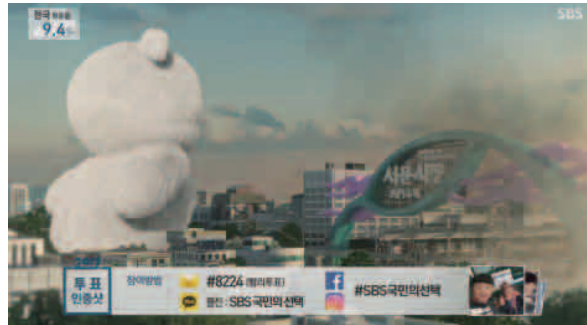
2017 국민의 선택

이제 어느 정도는 알려졌겠지만, SBS는 고유의 선거용 그래픽 송출 시스템인 VIPON(Vote Information Processing Online Network)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다. VIPON은 선관위가 제공하는 실시간 선거 관련 정보(ex. 지역 투표율, 예측 조사 결과, 후보별 득표율 등)를 그래픽 화면에 표출해 주기 위한 시스템이다.

2017 대선 방송의 특징

힐링과 공감의 바이폰

우선 SBS의 대표 선거방송 바이폰 메뉴인 “투표로가 간다”의 경우, 기존 선거방송이 지역별 명소를 찾아다니는 컨셉이었다면, 이번 선거에서는 전국 곳곳, 이슈가 될 만한, 특히, 아픔이 있었던 곳(세월호 팽목항, 경주 지진, 대구 서문시장 등)을 찾아가 그 아픔을 직접 공감하고 치유하는 컨셉으로 개발했다. 그 외에 “하늘을 날아서” 같은 메뉴에서는, 기술적으로 지역 간 이동, 즉 화면 전환 방식을 컷이나 디졸브 같은 고전적인 방식보다는 상하 이동의 화면 전환 방식이 적용하여 선보였다.



투표로가 간다



하늘을 날아서(투표)



하늘을 날아서(개표)



국민투표단

또한, 서문에서 언급했듯 특히 이번 선거의 취지인 “국가의 주인인 국민과 함께한다”를 가장 잘 살린 바이폰으로 평가되는 국민투표단(국민개표단) 바이폰도 선보였다.

한층 더 정교화된 그래픽



대선맨(투표)



권좌의 게임

SBS의 아이폰의 가장 큰 특징점 중에 하나인 정교한 그래픽 표출은 이번 선거에서도 그 빛을 발했다. 지난 총선보다 훨씬 정교한 카메라 트래킹 기술이 적용되었으며, 마치 실제 영상으로 촬영된 것과 같은, 실사와 그래픽의 정교한 합성에 의해 한층 더 수준 높은 아이폰을 선보였다.

이번에도 달린다(록키)

투표로와 함께 SBS만의 아이폰 메뉴인 달리기 메뉴의 경우 지난 대선에서는 영화 “친구”를 모티브로 그래픽을 제작하였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록키”를 그래픽 화하여 표출하였다.



내일은 챔피언



2012년 대선 달리기 메뉴 화면

트렌드를 반영한 아이폰

또한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포켓몬고, 인형 뽑기, 평창 동계올림픽, VR 등 다양한 이슈들을 그래픽 화하여 트렌드에 맞는 신선한 그래픽을 선보였다.



투표몬고



픽미!픽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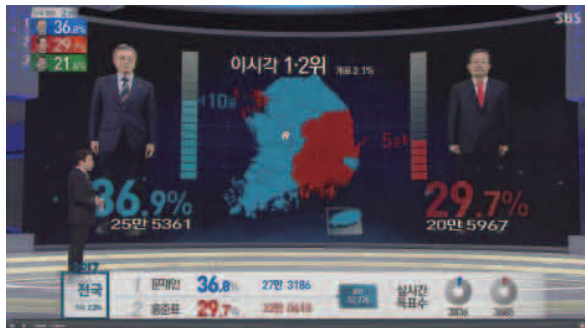
대선 컬링



VR 오디션

국산 장비 사용 확대

노말과 하단 화면은 선거방송 그래픽의 가장 흔한 형태로서, 이를 송출하는 “기본 송출 장비”의 그래픽 송출 기능 및 성능은 전체 선거방송의 수준을 좌우한다고도 볼 수 있다. 또한, 노말 및 하단 화면에 실시간 데이터를 표출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그래픽과 데이터를 연동하는 제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며, 이 제어 프로그램은 해당 “기본 송출 장비”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SDK를 활용하게 되는데, 결국 시스템 자체의 기능 및 성능 못지않게 해당 SDK의 기능과 안정성 또한 중요하다. SBS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 그동안 끊임 없이 SDK의 기능적 한계로 인한 개발의 비효율성 문제 및 성능 저하 문제가 제기되었었던 기존 송출 장비를 국산 장비로 과감하게 교체하였다. 그 결과로 메뉴 생산 효율을 1.5배 이상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번 선거에서는 기존에 적용되었던 노말 하단뿐 아니라 PT월 메뉴 일부도 신규 송출 장비에서 제공하는 SDK를 활용하여 개발 적용하였다.



미디어월(개표 메뉴)



미디어월(투표 메뉴)

플랫폼별 아이폰 별도 운행



2016년 총선 라이브웹방송(“여야본색”)



SBS 비디오머그 라이브 메인 화면



비디오머그 라이브 웹방송 아이폰 운영(하단)



비디오머그 라이브 웹방송 아이폰 운영(노말 및 하단)

SBS는 지난 총선에서 국내 최초로 라이브웹방송을 선보였다. 이번 선거에서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서비스되고 있는 SBS의 온라인 플랫폼인 비디오머그를 통해 별도의 아이폰 메뉴를 개발하여 선보였다.

국내외 반응

SBS는 이미 지난 대선 때부터, 국내외로부터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었다. 이번 선거에서도 외신들은 “미쳤다”, “차원이 다르다”며 감탄을 금치 못 했다. 외교 전문지인 포린 폴리시(FP)는 왕좌의 게임, 포켓몬, 대빙(Dabbing) : 한국인들이 선거를 보는 미친 방식’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SBS 대선 방송을 소개하기도 했다. 또한 미국 IT 전문 매체 더 버지(the verge)도 “한국의 개표 방송은 차원이 다르다”라고 소개했다. 특히 더 버지는 “한국에서는 뛰어난 그래픽을 보면서 선거 결과에 대한 불안을 떨칠 수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같은 실제 정치 상황과 달리 이 같은 그래픽들은 꽤 유쾌해 보인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 도쿄 지국장인 안나 피필드도 트위터에 ‘왕좌의 게임’을 패러디한 SBS 그래픽을 화면에 올렸다.



외신 반응(FP)



권좌의 게임

결언

2012년 이후 SBS는 언제부턴가 “SBS는 선거방송만 준비한다”, “약 빨고 만든다”, “관계자들 대상으로 도핑테스트가 필요하다”는 의혹 속에 매년 선거철이면 SBS가 어떤 콘텐츠를 선보일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왔다.

매번 선거가 끝나면 선거를 준비했던 기자, 작가, 디자이너, 엔지니어 등 관계자들은 몇 달간 요양이 필요할 정도로 “완전 연소”가 된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받은 관심과 사랑이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에너지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대하시라 내년 6월을...